국제화 프로그램 참가 결과보고서

소속	([redacted]
성명	[redacted]
참가 프로그램	NTNU(National Taiwan Normal University) MTC(Mandarin Training Center) -2026 Winter 3Weeks Express Program
프로그램 참가기간	2026.01.05.~ 2026.01.23.

1. 현지연수 파견 전 절차

국립타이완사범대학(NTNU)의 글로벌 연수기관인 MTC의 단기 중국어 연수 프로그램은 홈페이지(https://mtc.ntnu.edu.tw/)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영어와 한국어도 지원해 어렵지 않게 신청할 수 있었다. 온라인 신청 후, 해외 계좌로 미리 수업료를 지불해야 등록이 완료된다. 대만의 경우 한국인은 비자 없이 90일까지 체류가 가능하여 따로 비자를 신청하고 구매해야 할 번거로움이 없었다. 수업진행 전에는 학생 정보(여권, 국가, 기타 건강정보 등)와 학생증을 만들기 위한 정면 사진을 이메일로 전송해야 했고, 수업 난이도와 분반을 위한 레벨 테스트가 온라인으로 진행되었다. 레벨테스트는 수업 첫날 1대 1 Interview 형식으로 한번 더 진행하며 합산 결과에 따라 A1, A2, A3, B1, B2, B3으로 나뉘게 된다. 기숙사는 따로 제공하지 않았다. 따라서 본인은 공용 세탁기와 건조기가 있는 비즈니스 호텔을 예약했다. 숙소의 경우 1달 단위로 예약하는 것이 더 저렴하여 1달로 예약했다.

2. 외국에서의 학습 및 체험 활동 내용(교육과정 위주로 기술)

본인은 학원이나 과외 등의 학습 없이 어플과 책으로만 3개월 정도 혼자 중국어를 공부했다. 어플과 책 모두 간체자였지만, 한국에서 번체자 책과 학습 어플을 찾을 수가 없었고, 결국 반은 가장 하위 등급인 A1으로 배정되었다. 모든 수업과정은 영어와 중국어로 진행되었다. 보통 오전 시간인 9시~12시에는 학습지를 통한 수업이 이루어졌고 14시~16시에는 문화수업. 그리고 현장체험이 있는 날은 14시~20시까지 진행되었다. 매주 월요일은 NTNU에 다니는 학생들과의 교류 시간이 있었으며 14시~16시까지 진행되었다. 분반 수업은 오전 시간에만 이루어지며, 오후 시간에는 각자가 신청한 문화수업, 현장체험에 따라 다 같이 어울릴 수 있었다. 문화수업에는 Taiwan Tea, Chinese Knot, Pan Painting, Kungfu, Daichi, Chinese Caligraphy가 진행되었고, 현장체험은 Taiwan Palace Museum, Shilin, Shifen, Yilan, Taiwan Tranditional Art Center, Jiufen 으로 이루어졌다. 문화수업과 현장체험 모두 전문 지식을 갖고 있는 강사와 가이드가 동행 했으며, 각 역사와 문화를 잘 이해할 수 있었다. A1에서 시작한 점이 기초 발음부터 시작하여 오히려 좋았고, Unit이 넘어갈 때마다 작은 성취감과 재미를 느낄 수 있었다. 단기 연수인 만큼 수업 과정이 매우 빠르게 진행되었으며, 그에 따라 스스로의 복습이 필수적이었다. 또한 다른 반과 달리 A1 반의 경우에는 학습정도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이 매주 진행되었다. 다른 반은 한자를 쓰고 읽는 것에 집중했다면, A1의 경우에는 최대한 많은 단어를 배우고 대화하는 것에 집중하였다. 따라서 자신과 가족소개, 취미 묻기, 카페나 식당에서

주문하기, 약속 잡기 등 실용적인 중국어를 중심으로 빠르게 배웠다.

3. 참가 성과

매주 시험을 보고 점수를 공개한다는 점이 공부에 대한 욕구를 더 가져오게 되었다. 또한, 매주 진행되는 NTNU 학생들과의 교류는 조 편성 형식으로 각반의 학생들이 섞여 진행되었다. 웬만하면 중국어로 진행되어 첫 주에는 대화를 아예 알아들을 수 없었고, 영어로 설명해줄 때조차 그 억양과 발음에 적응하지 못해 참여조차 힘들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혼자서 외국인 친구들을 사귀고, 적응하는 과정을 거쳐 영어로는 모든 것을 이해하고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었고, 마지막 주에는 중국어를 토대로 조금의 대화도 할 수 있었다. 식당이나 카페에 갈 때는 번역기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으며, 웬만하면 중국어로 문제없이 대화할 수 있게 되었다.

4. 본인 소요경비(최대한 자세하게 표로 작성)

	항공료	보험료	숙박비	프로그램비	eSim	식비 및 기타 경비	합계
대만 TWD			23,000	39,000		23,000	
한국 KRW	322,200	6,400	1,129,300	1,833,000	18,500	1,129,300	4,438,700

숙박비는 직접 현금 계산해야 했으며, 식비 및 기타 경비 또한 현금을 이용했다. 당시 현금 구매 환율은 약 51원이었으며, 본인은 KB 환율 우대를 통해 49.1원에 거래하였다. 프로그램비는 해외송금 형식으로 진행되었기에 당시 해외송금 환율 47원으로 계산하였다.

원래는 약 42원 정도에 형성되었던 환율이지만 최근의 원화 가치 하락으로 인해 예상보다 지출이 커졌다. 또한, 대만은 아직 카드를 받지 않는 경향이 커 현금을 추가 인출할 때 발생하는 수수료(기타 경비에 포함)도 무시하지 못했다.

5. 본 프로그램 참가 후 느낀 점

본 프로그램에 같이 수강하는 학생들 중에는 한국인이 7명 정도 있었다. 처음에는 혼자 적응하는 데에 있어 언어적으로, 문화적으로 어려움을 느껴 의존하고 싶었으나 같은 반에 한국인이 없어 혼자서 적응해내야 했고 지금 생각해보면 오히려 그 점이 해외에서의 자신감과 언어적 자존감 그리고 적응력을 키워내는 긍정적 방향으로 중요하게 작용한 것 같다. 처음의 어려움을 극복해 낸 이후에는 일부러 한국 학생들과 어울리지 않으려 했고 결국에는 외국인 친구들과 더 친해져 식사 시에는 스위스, 일본, 리비아, 리투아니아, 미국, 캐나다 친구와 함께 다녔고 일본인, 리비아인 친구와는 더욱 친해져 수업이 끝난 후에 같이 타 지역으로 1박 2일 여행도 가게 되었다. 외국인 친구들은 20대~60대로 대부분이 각자의 직업이 있었고 그 중에는 회사원부터 철강회사 사장, 변호사, 브랜드 스타트업, 차량 도색사까지 다양했지만 모두가 나이, 직업에 상관없이 똑같이 대하고 영어를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점에서 언어의 중요성과 시야를 국내에 국한될 것이 아니라 세계로 봐야 하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게 되었다. 또한 대만에서 약 한달을 적응하고 지내며, 해외 취업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고 그에 따른 언어와 전문 지식에 대한 필요성과 욕구, 열정을 느끼게 되었다.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학습에 대한 즐거움을 실제로 크게 느끼고 행복을 느꼈기 때문에 물질

적인 것에만 중점을 둘 것이 아니라 이렇게 새로운 나라의 문화와 언어를 학습하는 것이 나에게 있어서 진정한 행복을 찾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6. 향후 학업 및 진로 계획

1) 학업계획

-본인은 타 과, 타 대학에서 편입과 동시에 무역학과로 전향하였기에 자격증이 없다. 학점은 현재에도 준수한 편이라고 생각하기에 최대한 유지하며, 무역영어 1급과 국제무역사를 따내려 한다. 또한 토익과 토익스피킹을 가장 중점에 두고 공부하려 한다.

2) 진로계획

-원래도 해외 취업에 대한 생각은 있었지만 적응력과 언어를 문제로 현실적으로 불가능 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이번 프로그램을 계기로 무조건 해외취업을 해야겠다는 아니지만, 국내에 국한될 필요가 즉, 스스로의 능력을 의심하여 제한을 둘 필요가 없다는 것을 크게 느꼈다. 따라서 본인은 전공인 무역학과를 살려 취업을 할 것이며, 스스로에게 능력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되거나 매력적인 직장이라고 느껴진다면 국내, 해외 가릴 것 없이 도전하는 쪽으로 진로를 계획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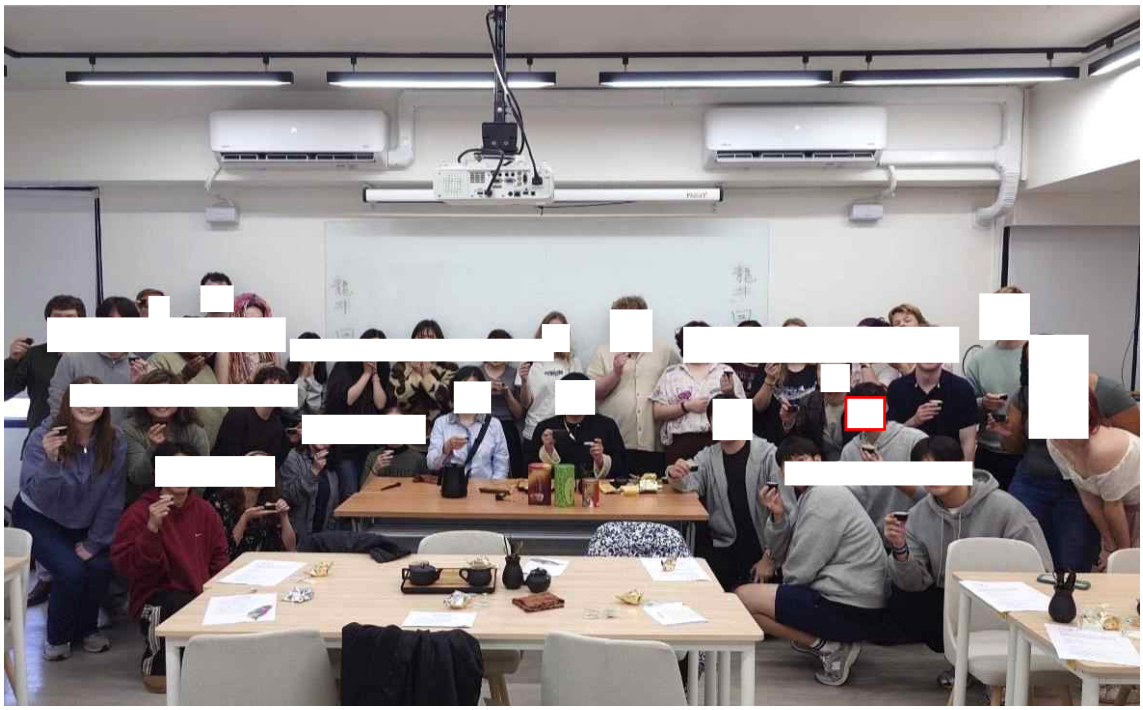
7. 향후 참가예정 학생들을 위한 조언

해외 연수 자체가 비용이 부담되고 특히나 단기 연수의 경우에는 비용이 더욱 비싸다. 실제로 NTNU MTC의 경우 3주 수강비용이 39,000TWD 이지만 3개월의 비용은 29,000TWD로 오히려 10,000TWD가 더 저렴하다. 물론 문화수업과 현장체험이 3개월 과정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하지만 단순계산 하여도 단기 연수는 한 회당 수업비용이 매우 비싸기 때문에 수업을 100% 이해하고 본인의 발전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연수 전의 예습과 연수 과정, 후의 복습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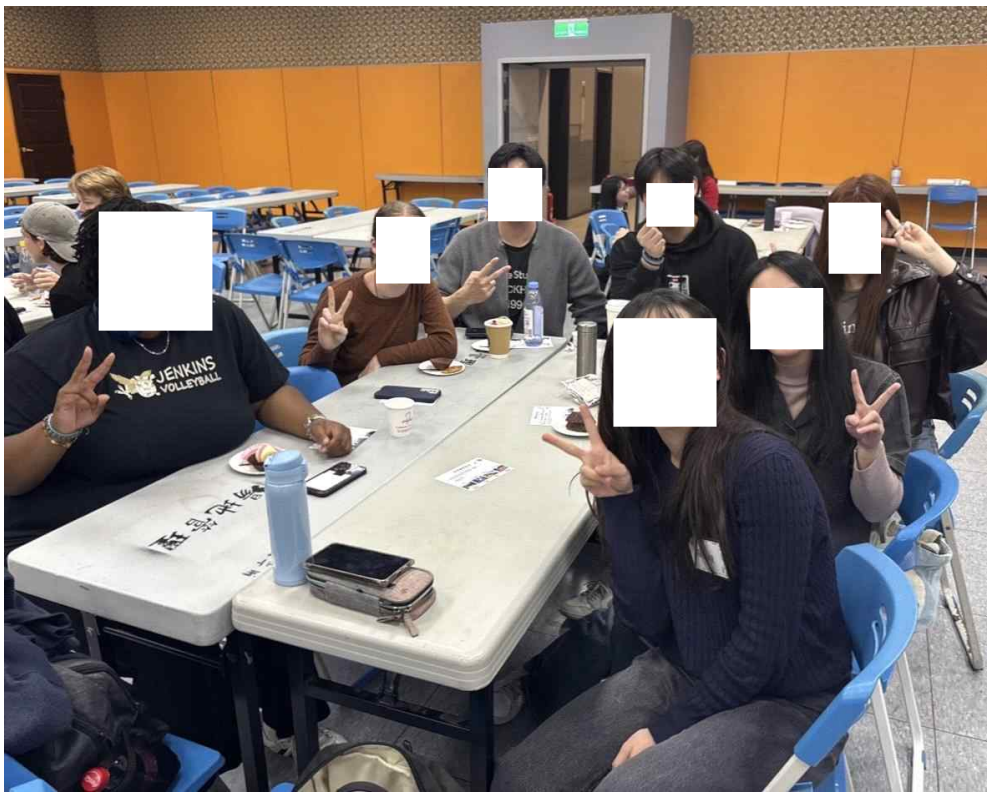
9. 활동사진

<문화수업 Chinese Knot 수강 후>

<문화수업 Taiwan Tea 수강 후>



<NTNU 학생들과의 교류 (오른쪽 세 명)>



<현장체험 Taiwan Tranditional Art Center>

<A1 반의 수강식 날>